

작품명	다(多) 경관 : 경계를 허물고 안산의 다채로운 일상을 잇다
작품의도	본 작품은 안산선 지하화 사업으로 확보되는 상부 공간을 단순한 교통 인프라의 이전이 아닌,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새로운 공공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고잔역, 중앙역에 이르는 선형 공간은 현재 도시를 분절시키는 물리적 경계로 작용하고 있으나, 지하화 이후에는 행정·상업·주거·문화 기능을 연결하는 통합적 도시 코어로 재구성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이에 본 계획은 기존 철도 부지를 시민 중심의 보행·녹지 공간으로 재편하여 단절된 도시 조직을 회복하고, 안산문화광장 및 주요 녹지 거점과 연계된 입체적 공공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존 철도가 지녔던 도시 성장중심의 복합 문화·생활 거점으로 재도약시키는 새로운 도시 공공 플랫폼을 제안한다.
작품설명	[모뉴멘탈 스케일 광장] 모뉴멘탈 스케일 광장은 안산의 도시 정체성과 상징성을 집약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공간으로, 도시의 성장과 부흥을 이끌어온 안산선 철도의 역사를 현재의 도시 공간 속에서 재해석하고자 계획되었다. 과거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었던 철도 인프라의 흔적을 공간의 구조와 바닥 페이빙에 반영하여 도시의 기억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통해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상징적인 공공축을 형성한다. -다화문 안산 오쿨러스는 기존 철도부지를 활용한 모뉴멘탈 스케일의 상징적 공간으로, 도시의 새로운 중심축을 형성하는 핵심 구조물이다. 상부 캐노피의 천장패턴은 과거 안산의 성장을 이끌었던 철도 노선을 형상화하여, 도시의 산업적·교통적 정체성을 공간적으로 드러내도록 계획되었다. 특히 메가스트럭처하부에 설치된 디지털 패널은 안산의 역사와 현재를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매체로 작동하여, 원거리에서도 도시의 상징성을 인지할 수 있는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메가스트럭처는 단순한 보행 쉼터를 넘어, 철도 인프라의 기억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제안하는 상징적 공공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과거의 교통 중심 구조를 도시 중심의 공공공간으로 전환하는 매개체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안산 오쿨러스 안산 오쿨러스는 상징 보이드 광장으로 지하 채광 시스템과 입체적 보이드 공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지하 공간의 환경적 한계를 개선하고자 계획되었다. 본 채광 시스템은 뉴욕의 Lowline Project와 종각역 ‘태양의 정원’에서 활용된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지상에서 집광된 자연광을 지하 공간까지 전달함으로써 지하 도시의 채광 문제를 해결한다. 원형의 보이드 공간은 지하 환과층을 수직적으로 연결하여 이용자들의 시각적·물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지하와 지상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 공간 구조를 형성한다. 이를 통해 기존 지하공간이 지니고 있던 폐쇄성과 단절성을 보완하고, 자연채광과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이 결합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구현하고자 한다. -중앙역, 고잔역 다이음센터 다이음센터는 지하 웰컴센터로 철도 지하화를 기반으로 지상과 지하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입체적 도시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거점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초지역에서 고잔역, 중앙역을 잇는 5.12km 구간은 수인분당선·서해선·신안산선 및 향후 GTX와 연계되는 수도권 서남부의 전략적 교통 결절점으로, 특히 중앙역 일대는 광역 환승 기능 강화를 통해 안산의 중심 기능을 재정의할 잠재력을 지닌다. 지하 웰컴센터는 고잔역과 중앙역을 직접적으로 연계하고 장애인등편의법을 반영한 설계로 보행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하와 지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교통 중심 인프라를 도시 중심 공공축으로 전환하는 입체적 공간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작품설명	[휴먼스케일 광장] 휴먼스케일 도로의 지화화를 통해 기존의 도로를 녹지로 확보할 수 있었고 선형녹지의 배치와 녹지공간을 철도 지하화를 통한수직으로 확장을 넘어서 도로 지하화를 연계하여 수평확장을 도모했다.조성 프로세스는 우선 도로를 지하화하여 상부 공간을 공공 녹지로 전환하고, 이후 인접 공간을 개방형 녹지로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주변 생활권 및 공원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연속적인 보행 환경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단절되었던 도시 조직을 회복하고, 시민의 일상적 이용이 가능한 활성화된 휴먼스케일의 공공 공간을 형성하고자 한다. -화정천 화정천 데크워크 구간은 기존 실개천의 제방 면적을 확장하고 건천 구역을 함께 형성하여 담수 용량을 증가시킨 생태형 하천으로 재구성하였다. 습지 기능 강화를 위해 정수식물, 부유식물, 부엽식물 등을 도입하고, 내공해성과 미세먼지 흡수율이 높은 교목·관목·지피식물을 다층 구조로 식재하여 도시 내 생태숲을 조성하였다. 하천의 한 측면은 직선형 수공간으로 계획하여 시민의 휴식 및 다양한 액티비티가 가능한 활동 중심 공간으로 구성하고, 반대 측면은 자연형 하천과 습지 공간을 도입하여 생태적 체험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도심 속에서 다양한 수변 경관과 습지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는 복합적인 하천 공간을 형성하고자 한다. -안산 다락 광장 안산 다락 광장은 다목적 부스가 포함된 커뮤니티 광장이다. 다목적 부스는 1인실, 2인실, 다인실로 계획되어 시민들이 계절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공원 내 실내 공간에서 휴식, 소규모 모임, 학습 및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된다. 반대 측면의 이벤트 광장은 야외 전시, 플리마켓, 야시장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되어 시민 참여형 문화 활동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일상적 휴식과 비일상적 이벤트가 공존하는 복합 문화 교류 공간을 형성하고자 한다. -다솜정원 새소리와 바람소리 등 다양한 자연의 소리를 체험할 수 있는 자연형 숲길을 모티브로 한 산책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상징성을 강조한 모뉴멘탈 스케일 공간과 대비되는 휴먼스케일의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머무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완만한 곡선형 동선과 다층 식재를 통해 자연 속을 거니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며, 도시 환경 속에서도 언제든지 자연을 체감할 수 있는 치유형 산책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식재전략] 식재 전략은 공간의 스케일에 따른 대비와 이용 행태를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휴먼스케일의 가로 공원 구간에는 지하고가 높은 교목을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군식 및 자유식 식재를 적용하여 충분한 그늘과 개방감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머무르고 싶은 보행 친화적 녹지 환경을 조성하였다. 반면 모뉴멘탈 스케일의 세로 축 공간에는 기념비적 경관 형성을 위해 열식 배치를 적용하되, 기존 1열 식재에서 벗어나 2열 이상의 복수열 식재와 번칙적 배식을 통해 수종을 다양화하였다. 또한 격자형 그리드 기반의 식재 구조를 도입하여 시각적 단조움을 해소하고, 제한되지 않은 자유로운 보행 동선을 유도하는 다층적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	--